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1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이력의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 발표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에 임금 이력을 묻는 일을 민관 고용주들에게 금지시키는 법안 상정*

*뉴욕주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동일 임금 보고서 발표*

*"밑바닥 일자리(**Sticky Floor**)"에서 여성들이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여성 권리 증진에 대한 주지사의 기록을 토대로 뉴욕을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궤도에 진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민관 고용주들이 채용 후보자들에게 급여 이력과 봉급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에 상정된 이 법안은 뉴욕을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보고서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서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발전시키려는 주지사의 업무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뉴욕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근소한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의 경우 남성이 1 달러를 받을 때 여성은 89 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별 임금 격차를 더욱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뉴욕은 독특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세네카 폴스에서 참정권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 탄생한 곳입니다. 우리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오늘도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인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존재합니다. 이 격차는 여성이 경력을 쌓더라도 전체 경력 내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급여 이력을 밝히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굴레의 무게를 깰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모든 여성들에게 공평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동일 임금 연구(NYS Pay Equity Study) 프로그램의 공동 의장으로서, Reardon 커미셔너님과 저는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자신의 일에 쏟아 부은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칠 때 그 여성들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한 남성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유색 인종 여성과 라틴계 여성들의 임금 격차가 더 크다는 사실이 이 현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뉴욕이 동등한 임금 측면에서 미국을 이끌고는 있지만, 임금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뉴욕은 여성들이 완전한 동일 임금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자리에 지원할 때 여성들이 이전 임금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연구할 기회를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진실에 눈을 뜨는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모든 곳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더욱 공정하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는 영구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지난해에 주지사가 서명한 다음과 같은 두 차례의 행정명령에 기초합니다. (1) 주정부 기관들이 급여 이력에 근거하여 채용 후보자를 평가하거나, 주정부 계약업체에 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등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2) 투명성을 촉진하고 뉴욕주 전역에서 동일 임금을 촉진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을 활용하도록 하여 임금 격차를 해소합니다. 오늘의 법안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입법 활동을 토대로 하여,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급여의 굴레를 깨기 위해 제161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61)의 범위를 주정부 기관만이 아닌 모든 고용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017년에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범위, 경제적 영향 등을 연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에 지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Kathy Hochul 부지사와 뉴욕주 노동부(State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성별 임금 격차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임금 격차를 전체 또는 특정 산업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기 위해 뉴욕시, 시러큐스, 롱아일랜드, 버펄로 등지에서 동일 임금 공청회(pay equity hearings)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이 보고서는 경제적인 스펙트럼과 뉴욕주 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하여 뉴욕의 성별 임금 격차 상태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뉴욕에서는 동일한 노동의 경우 남성들이 1 달러를 벌 때 여성들은 89 센트를 법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근소한 임금 격차로 전국 평균인 80 센트 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남성과 비교할 때, 뉴욕의 유색 여성의 경우 그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달러당 64 센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며, 히스패닉계 여성과 라틴계 여성에게는 달러당 55 센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른 연구 결과의 경우, 이 연구로 금융, 보험, 부동산 업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중간 소득값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여성이 경력 사다리의 가장 낮은 가로대를 올라서서 상승하는 것을 막는 광범위한 장애물을 가리키는 용어인 "밑바닥 일자리(sticky floor)"를 포함하여 임금 격차의 원인 중 일부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1) 취업 기회의 폭, 급여 협상, 금융에 관한 지식 등에 대한 뉴욕주 전 지역의 공교육 캠페인 출범, (2) 육아 및 가족 휴가 사용 가능성 확대, (3) 젊은 여성을 위한 경력 멘토링 증가, (4) 직책, 급여, 수당 등에 관한 데이터 및 투명성 개선 등을 비롯하여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 권고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직원 일정 규정을 제정하여, 팁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의 기준 임금(subminimum wage)을 없애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이미 노동부(Department of Labor)가 조사하도록 지시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 보고서의 정책 권고안 중 핵심은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민관 고용주들이 채용 후보자들에게 급여 이력과 봉급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급여 이력 금지(salary history ban) 법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성이 이미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남성과 같은 생산성을 올리고 있는 데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성별 임금 격차의 복합적인 속성을 정지시킬 것이다. 오늘의 법안은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어 베터 밸런스(A Better Balance, ABB) 단체의 Dina Bakst 공동 창립자 겸 공동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베터 밸런스(ABB)는 여성 평등에 대한 공약을 지속하면서 확대하고 계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급여 이력 금지 법안을 상정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개최된 동일 임금 공청회(Pair Equity Hearing)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기타 핵심 정책 권고안을 발표함으로써, Cuomo 행정부는 여성, 특히 가장 적은 자원을 가진 여성들이 공평하고 평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파워 뉴욕(PowHer New York)의 Beverly Neufeld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리더십 덕분에, 뉴욕은 뉴욕 여성들의 동일한 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주는 미국에서 가장 근소한 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파워 뉴욕(PowHer New York)은 임금 및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다음의 중요한 조치를 취하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모든 여성을 위해 경제적인 평등을 만들기 위해 이 권고안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과 경력 촉진을 위한 여성 센터(Women's Center for Education and Career Advancement)의 Merble Reagon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 임금의 날 2018(Equal Pay Day 2018)을 맞아, 뉴욕주 전 지역의 모든 여성을 대신하여 주지사님의 진보적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은 뉴욕주가 자신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할 수 있는 임금을 받는 모든 여성들의 길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들을 해결하는 데 미국을 선도하는 뉴욕에게 남겨진 특별한 기회입니다. 경제적인 빈곤을 특징짓는 부적절한 노동 활동이 아닌 노동에 대해 부적절하고 불평등한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색 인종 여성이 일인 가구를 유지하는 이유는 특히 미혼모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학 여성 연합 뉴욕주 지부의(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of New York State) Cynthia Herriott 공공 정책 담당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 여성 연합 뉴욕주 지부는(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AAUW)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평등과 교육을 촉진하는 데 계속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이력 금지에 관한 Cuomo 주지사님의 새로운 법안은 동임 임금을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인 출발점입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이 회기 동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기독교 여성 청년회(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 뉴욕주 지부의 Michele Johnson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여성 청년회(YWCA) 뉴욕주 지부는 대단히 중요한 동일 임금 문제에 대해 주의를 계속 기울여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성이 책임지고 있는 가구의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빈곤율에 기여하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입니다. 뉴욕주 전 지역의 기독교 여성 청년회(YWCA) 노동의 핵심,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업스테이트 뉴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 여성 청년회(YWCA)의 주요 지지자인 유색 인종 여성의 경우,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지사의 보고서에 포함된 팩트를 수집하고 증언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빈곤 퇴치하고 여성의 성취를 저해하면서 유지되어 온 성 불평등을 종식시키는 데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